

한국현대사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7주차. 박정희(2)
2강. 근대화의 아버지



학습 내용

1. 박정희의 산업화 성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2. 산업화 성공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학습 목표

1. 박정희의 산업화 성공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에 대해 학습한다.
2. 산업화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강 근대화의 아버지





생각해 볼 문제



- 산업화의 전제는 무엇인가?
-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산업화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01 들어가기 전에

✓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 ➔ 후발산업화 성공
- ➔ 단군 이래의 가난 해방
- ➔ 경제개발5개년 계획 수립하여 최빈국에서 산업대국으로 바꾸어 놓았음

✓ 박정희의 산업화 모델은;

- ➔ 형평성을 동반한 성장
- ➔ 수출 주도 산업화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형 산업화 모델의 전형
- ➔ 후후발 산업화 국가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배우자’ (learning from Korea)로 이어졌음



1] 내생적(endogenous) 발전이론

☑ 박정희의 탁월한 전략적 선택 강조

☑ 추종자들의 관점



1] 내생적(endogenous) 발전이론

☑ 60년대의 절대빈곤 탈피, 급속한 경제성장의 필요충분조건;

- ➡ 박정희 식의 리더십 절대 필요
- ➡ 왜냐하면 정책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 ➡ 부패한 정치인들이 관료들의 효율적 정책집행 방해,
- ➡ 선거구민이 요구하는 각종 지역구 선심 사업으로 점철되어 있는 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
- ➡ 박정희 식으로 근대화를 일사분란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 ➡ 근대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립,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관료적(technocratic) 리더십 필요



1] 내생적(endogenous) 발전이론

✓ 박정희의 산업화는;

- ➔ I. Wallerstein의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 (promotion by invitation)으로 설명 가능
- ➔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의 상승 성공사례

✓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은;

- ➔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팽창기에 중심부의 자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
- ➔ 즉, 중심부의 초청에 의해 주변부의 지위상승을 꾀하는 전략



1] 내생적(endogenous) 발전이론

✓ 1960년대에 한국이 초청을 받게 된 주요 배경에는;

- ➔ 신국제분업질서(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대두
- ➔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비용 증가
- ➔ 중심부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이 원료와 중간재를 주변부 공급
- ➔ 주변부에서 이를 조립하게 하여 다시 중심부로 수입하는 신국제분업질서 출현

✓ 신국제분업질서 아래의 생산기지의 재배치는;

- ➔ 생산 공정의 분절화(fragmented operation)
- ➔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주변부 생산시설의 원격관리 가능해짐으로서 완결
- ➔ 이 과정에서 잘 교육받고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값싼 노동력이 존재하는 한국이 후보지로 선택



1] 내생적(endogenous) 발전이론

✓ 전략적 선택 이론은 박정희의 산업화 전략의 선택 강조

✓ 박정희와 군부엘리트들은 처음부터 수출 지향적 산업화 시도하지 않았음

✓ 군부엘리트들은 쿠데타의 정통성 때문에, 민중주의적 경제정책 시도

- ➔ 쿠데타 이후의 경제 조치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와 부정축재 처리
-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는 농촌 소득의 향상을 통한 자립경제 달성
- ➔ 수출은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아닌,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2차적 역할로 한정
- ➔ 투자 재원은 국내저축으로 충당



1] 내생적(endogenous) 발전이론

✓ 민중주의적이고 수입대체 산업화적인 제1차 경제개발계획 실패

투자재원
조달 실패

심한 인플레
초래

계획 수정
불가피

✓ 1963년 8월에 수정된 경제개발계획은;

- ➔ 수출지향 산업화로의 전환이라는 산업화 전략 자체의 변경
- ➔ 1964년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의 전략 변경을 통해 신국제분업질서의 초청에 응답
- ➔ 산업화의 기틀 마련



2]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이론

✓ 산업화 국가를 고안, 기획, 실행에 옮기는 박정희의 국가경영능력 강조

✓ 국가 주도 아래 자본주의적 산업화 실행

✓ 박정희의 산업화 국가는 기업가적 국가는 아님

➡ 시장을 대체하여 국가가 직접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는 아님

✓ 시장순응적인 신고전주의 국가도 아님

➡ 경제가 시장원리로 작동하여 비교우위에 따라 성장하도록 유인



2]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이론

✓ 박정희의 산업화 국가는 시장 형성적 또는 시장지배적인 개발 국가

- ① 적극적인 시장 개입 ② 의도적인 가격 왜곡 ③ 거시경제정책에 맞게 자원배분 유도



3] 외생적 발전이론(exogenous development theory)

✓ 산업화의 성공은;

- ➔ 박정희의 개인적 역량이 아닌,
- ➔ 도시 중심 산업화에 유리한 구조적 조건에 기인함
- ➔ 1960년대 중반에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급 구조 형성

✓ 계급구조 측면에서;

- ➔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의 전략 변경에 따르는 계급적 저항이 없었음

✓ 이 점이 남미와 한국(대만)의 차별성

- ➔ 남미는 신국제분업질서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
- ➔ 한국(그리고 대만)은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



3] 외생적 발전이론(exogenous development theory)

☑ 1950년대 농지개혁과 전쟁으로 인한 지주계급의 해체는;

- ➡ 도시 중심의 산업화에 저항할 조직적인 정치적·경제적 세력 부재
- ➡ 토지개혁의 결과 형성된 소규모의 자영농은 계급적으로 조직되지 못함
- ➡ 도시 중심의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자로 전락



3] 외생적 발전이론(exogenous development theory)

☑️ 지주계급의 부재만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화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았음

☑️ 수출 지향적 산업화가 1950년대에 추진되었다면;

➡️ 자유당 정권과 지대 추구 자본가들 간에 형성된 수입대체 산업화 연합의 저항에 직면

☑️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엘리트들은;

➡️ 수입대체 산업화의 정치적 연합을 붕괴

➡️ 새로운 지배 연합 형성



3] 외생적 발전이론(exogenous development theory)

☑ 군부엘리트가 수입대체 산업화연합을 파괴시킬 수 있었던 것은;

- ➡ 수입대체산업화 지배 연합이 민중과의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 ➡ 원조물자를 매개로 한 자유당 정권과 기업가들 간의 정치적 연계망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



4] 외생적 촉진요인 (exogenous facilitating factor)

✓ 산업화의 성공을 미국의 ‘자비로운 헤게모니’ (benevolent hegemony) 개념으로 설명

✓ 냉전구조 하에서의 한국은;

- ➔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는 전초 국가로서의 전략적 가치
- ➔ 미국은 한국의 후견국가로서 안보 보장
- ➔ 토지개혁을 지원하여 60년대 이후의 한국의 도시 중심적 산업화를 위한 계급적 기초 마련



4] 외생적 촉진요인(exogenous facilitating factor)

☑ 미국의 자비로운 헤게모니 행사 방식은;

- ➡ 직접적으로는 군사원조와 경제원조 제공
- ➡ 간접적으로는 수출상품의 미국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
- ➡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대여 특혜 제공

☑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시혜’는;

- ➡ 경제원조와 소비시장 제공
- ➡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과 차별적인 한국적/동아시아적 ‘발전국가’ 모델 추구 허용



5] 근대화모델 평가

✓ 산업화 성공에 대한 네 가지 이론;

- 1 박정희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내생적 발전론
- 2 산업화를 위한 박정희의 국가경영능력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
- 3 산업화에 유리한 계급 구조의 형성을 강조하는 외생적 발전론
- 4 미국의 ‘자비로운 헤게모니’를 강조하는 외생적(지정학적) 촉진론



5] 근대화모델 평가

☑ 내생적 발전론, 발전국가론은 박정희의 탁월한 선택과, 국가경영 능력 강조

☑ 외생적 발전론과 외생적 촉진론에서 박정희는;

- ➡ 구조의 배달부(carrier of structure)
- ➡ 지정학적 행운의 유산 승계자



5] 근대화모델 평가

☑ 박정희의 산업화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는;

- ➡ 박정희의 전략적 선택의 적절성
- ➡ 리더십의 탁월성
- ➡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약탈적(predatory) 독재자 아님
- ➡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개발 독재자(developmental dictator)
- ➡ 산업화의 성공이 박정희의 역량에만 근거하고 있지 않음



5] 근대화모델 평가

☑ 1960년대 경제성장에 대한 타당한 평가는;

- ➡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전환되어 가능했다기보다는
- ➡ 도시 중심의 산업화에 친화적인 계급 구조의 형성
- ➡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 · 구조적 조건
- ➡ 국가와 시장 간의 적절한 분업 구조의 형성
- ➡ 적절한 발전전략의 선택 등의 내생적 조건
- ➡ 미국의 자비로운 헤게모니 등의 외생적 조건의 다양한 결합



5] 근대화모델 평가

- ☑ 박정희의 근대화 모델이 과연 전형적인 발전지향적인 근대화 모델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음



5] 근대화모델 평가

◆ 체제 성격이 어떠한지?

☑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 체제

☑ 국가엘리트의 배를 불리는 권위주의체제 (authoritarian state elite enrichment)

☑ 약탈 국가적 (predatory state) 성격

- ➡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친코 사건)
- ➡ 차관도입 문제
- ➡ 은행 대부
- ➡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경유착 등



5] 근대화모델 평가

◆ 국가주도 산업화에 권위주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모든 국가주도 경제가 권위주의적인 것은 아님

☑ 핀란드, 오스트리아, 일본의 발전 국가도 국가주의적인 경제발전을 민주주의 하에서 이룩함

☑ 박정희는 산업화의 심화(deepening)를 위해;

➡ 권위주의 독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산업화의 심화(중화학공업화)를 명분으로 내걸었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5] 근대화모델 평가

◆ 국가주도 산업화에 권위주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산업화가 민주화의 선행조건은 아님

☑ 산업화를 위해 개발 독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역사적 필연론은 경험적·당위론적으로 지지 되지 않는다는 것임

☑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자유주의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이지 역사적 필연은 아님



5] 근대화모델 평가

◆ 권위주의적 산업화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 산업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 산업화 모델은 성장과 분배가 동반성장하기 어려운 불균형 발전모델

☑ 산업화 프로젝트를 시행한 주체는 정부도 다국적 기업도 아닌, 가족중심의 기업집단인 국내 대자본가(재벌)



5] 근대화모델 평가

☑ 한국적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

- ➡ 박정희는 재벌을 육성하고 (inventing bourgeoisie), 재벌로 하여금 중화학공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였음
- ➡ 재벌을 산업화 프로젝트에 유인하기 위해 독점이윤 보장
- ➡ 기업의 손실과 위험의 사회화 (socialization of risks)
- ➡ 재벌에 대해서는 금융, 재정적 특혜, 외자 배분, 진입 제한, 국내시장의 보호와 독과점 시혜
- ➡ 반면, 노동자와 소비자 대중은 재벌의 손실과 위험의 사회화 부담을 지면서, 성장의 과실과 이익의 배분에서 배제, 억압당하였음



5] 근대화모델 평가

☑ 박정희의 불균형 발전모델은;

- ➡ 공간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확대 심화시켜 지역 분열, 지역갈등 조장
- ➡ 성장제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환경을 파괴, 착취
- ➡ 근대화의 반생태주의는 부동산 투기, 토건국가의 유산 전승

☑ 박정희의 발전국가 모델은 자율적 감시와 책임 규율 취약한 모델

- ➡ 국가는 금융통제권을 활용하여 재벌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 육성
- ➡ 궁극적으로 국가는 재벌에 포획됨



5] 근대화모델 평가

☑ 관치금융은;

- ➡ 재벌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게 함
- ➡ 국가가 발권, 국채, 조세를 통해 부실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연결고리의 출발점
- ➡ 재벌의 경영실패에 대해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 결여
- ➡ 재벌의 실패 비용은 채권자, 예금자, 주주, 노동자, 국민 일반 부담
- ➡ 성장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됨



학습 정리

- ? 박정희의 산업화 성공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자유주의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다.
- ? 박정희의 한국적 발전국가 모델은 재벌 중심으로, 노동자가 소외되었다.

